

# 전주시, 도시개발사업 LID기법 도입

(저영향개발)

### 시정 핵심 과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 위한 한 축으로 생태도시 종합계획 따라

전주시가 도심 물길을 되살리고 하천 건전화 해소를 위해 모든 도시개발 사업에 LID(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해 추진한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정의 핵심 과제인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를 위한 한 축으로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은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LID기법이 도입되면 도로 포장 등 불투수층 증가로 인한 하천 건전화와 하천법탈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주시의 물길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법적 비의무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저영향개발 기법이 도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우수유출량 검토와 지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환경성 검토서나 전라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LID 기법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한 도로와 공원, 하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시설 결정 및 실시 계획 인가시 사업특성을 고려한 저영향개발(LID) 기법 검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개발 사업 추진시는 사업 담당부서로부터 시 추진계획 및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달의 청원들은 누구?

10월 청원 공감한마당 행사가 10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조봉업 부시장이 친절공무원 및 정보자서인대회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장을 전달하고 있다.

민간 협조가 요구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인허가 신청 시에도 건축담당부서로 하여금 옥상 녹화와 빗물통, 투수성포장, 빗물이용 시설 등 사업계획에 저영향개발(LID) 기법이 반영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월 시정 핵심과제인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를 위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하고 교통과 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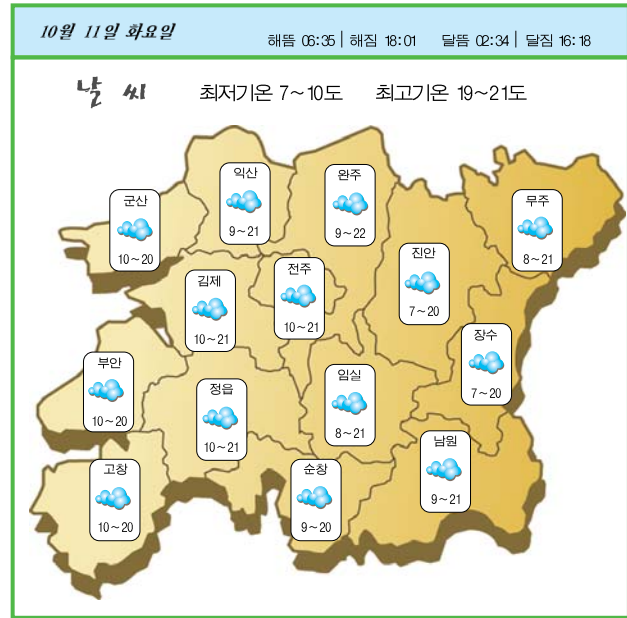
지, 에너지, 환경, 도시계획 등 전주만의 특색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을 본격화했다.

이를 통해 전주를 △소통과 포용의 시민문화도시 △사람과 자연의 다양성이 있는 도시 △시민이 존중받으며 이동하는 도시 △문화와 역사가 있는 독창적인 도시 △미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생태도시 관련 산업을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로 만

들 계획이다.

양도시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전주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저영향개발 기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해 추진할 계획이다"며 "열섬 완화 대기 오염 개선, 친수 공간 확대 등을 통해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 조지아 주요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서아시아 코카서스 지역 국가인 조지아의 주요 대학과 오프캠퍼스 시행 등 국제협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 운영명사추진위원장(대의협력본부장)은 지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조지아를 방문해 트빌리시 자유대학과 조지아 공과대학, 조지아 공과대학 등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전북대는 이 대학들과 농생명 분야를 비롯해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조지아 공과대학과는 이 국가의 우수한 외인제조공정을 4주나 혹은 한 학기 과정으로 하는 오프캠퍼스를 추진키로 해 전북대 학생들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득할 수 있

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한 전북대 방문단은 10월 7일 조지아 트빌리시 자유대학에서 제1회 코카서스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대회에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3개국에서 예선을 거쳐서 선발된 10명의 학생들이 열린 경연을 펼쳤으며,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격려하고 포상했다.

말하기대회에서 최우수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전북대와 트빌리시 자유대학의 총장장이 수여되었으며, 전북대 언어교육원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장학증서를 전달, 코카서스 지역 내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에 대해서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고민형 기자

## 전주시, 아름다운 간판제작으로 지붕 없는 미술관 만들기

### '우리동네 좋은 간판상' 공모전 진행 11월 30일까지 접수

전주시가 전주만의 아름다운 간판제작을 통해 도시 전역을 지붕 없는 미술관 만들기에 나선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형 광고문화 형성과 품격 높은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2016 우리동네 좋은 간판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현재 전주시에는 가로간판 1만6724개와 세로간판 142개, 돌출간판 1만4510개, 옥상간판 626개 등 총 3만5134

개의 옥외간판이 설치돼 있다.

이에 시는 그간의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간판과 창의적이고 조형미가 우수한 간판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등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확립키로 했다.

공모전에는 간판이 설치된 광고주 또는 간판을 제작한 광고업자 및 간판 디자인 설계자와 일반인, 학생, 전문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기존 간판 분야와 창작간판 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눠 대상 1점과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작에는 대상 200만원과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수상작을 아름다운 간판 만들

기를 위한 각종 시민 홍보·교육자료와 전시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주시 도시디자인 담당관실 관계자는 "2016 우리동네 좋은 간판상 공모전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주시 관내에 좋은 간판 매력적인 간판 아름다운 간판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도시디자인담당관실(033-281-5137)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 도교육청, 생활화학제품 안전사용 가이드 마련

전북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사용 가이드를 마련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가슴기 살균제로 인한 인명 피해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도내 50여개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표본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정보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가이드를 통해 스

프레이나 에어로졸 형태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유해성이 의심되거나 안전성이 불확실한 제품은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녹색제품이나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및 노출경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안전한 사용방법 및 환경부에서 고시한 회수명령 생활화학제품 목록 등이 가이드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시민의 생각이 김제시의회의 생각입니다.

http://council.gimje.go.kr

전주매일신문 '창간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